



놀이 전문가와  
관객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노원 놀이마당 사랑회’

‘조명이 넘어지고, 마이크가 꺼지기도 하고, 출연자가 밥을 먹으러 가는 바람에 순서가 뒤바뀌는 무대를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빗발치는 관객들의 야유에 찢절때는 출연자와 무대 뒤에서 식은 땀을 흘리는 연출가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인 관객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편안하게 즐긴다. 진행자의 표정에도 설핏 웃음이 지나갈 뿐 아무도 타박하지 않는다. 예전에 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서 배우와 구경꾼이 하나가 되었던 그런 공간을 다시 살려보려는 사람들인 ‘노원 놀이마당 사랑회’(이하 ‘사랑회’)가 만드는 공연의 모습이다.

‘사랑회’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중계 근린공원에 있는 원형무대를 중심으로 연간 7, 8회에 걸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놀이마당을 기획하고 주최해 온 지역문화모임이다. 1997년 7월에 처음 펼쳐졌던 놀이마당이 올해 어린이날을 기해 어느덧 십 두 번째를 맞았다. 약간의 변화를 거쳐 왔으나 해마다 시기에 따라 대보름마당, 어린이마당, 단오마당, 청소년마당, 광복절마당, 추석마당, 주민마당 등을 마련해 왔다.

배우와 구경꾼의 하나됨

각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때가 되면 공원 벤치나 회원의 집에 모여 놀이마당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랑회’ 운영위원들은 현재 12명 정도. 자신이 아닌 남이 오를 무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숨 가쁜 서울생활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고 자기 주머니까지 털어가며 놀이마당을 이어올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모 화장품회사 영업팀장이자, 탈춤 이수자이기도 한 '사랑회'의 이경철 운영위원장(46)을 그의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옛날에는 춤을 추지 않았어도 춤판의 구성원이었으나, 지금은 춤을 추지 않으면 오로지 관객일 뿐입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놀이가 전문집단의 향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처럼 각 개인들에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 느티나무 근처에서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었던 그 시절처럼요. 그것을 통해 다시 공동체 문화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공연의 예술적 완성도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삶을 표현하는 방법인 문화에서 각 개인이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 속에서 사랑회가 술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을 엿볼 수 있다.

### 놀이마당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

하이라이트는 대보름마당이다. 다른 공연에는 4~500여 명의 관객들이 모이지만, 대보름마당의 경우에는 1,500 내지 2,0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연을 함께 꾸민다. 햇불 2~30개를 들고 풍물놀이와 함께 시작되는 길놀이를 하며 주민들과 함께 공원 가까이 있는 중량천으로 간다. 부림 개기에 이어 종이에 소원을 쓰고 달집에 꽃아 두는 소원 빌기, 나이대로 뛰어 넘는 불 넘기 후에는 쥐불놀이를 한다. 우리 조상들은 해충과 쥐를 없애기 위해 논과 밭 사이에 있는 쥐구멍에 불을 놓았기에 쥐불놀이라 했는데, 해방 후에 미군과 함께 들어 온 깡통으로 인해 일명 '깡통놀이'로 변했다는 설명이 따르지만, 어찌됐건 밤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깡통 불의 곡선은 경탄을 자아낼 만도 하다. 고사를 지낸 뒤에 소원을 꽃아 놓은 달집을 태우는 순서에 이르면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른다.

중량천이 있었기에 서울이란 도시 안에서 우리 전통의 맥을 잇는 대보름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보름마당에서 달집에 소원을 꽃고 깡통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어린이들

그러나 사랑회의 노력이 없었다면 중량천은 그저 탁한 물이 흐르는 도시 하천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대보름마당은 행사 규모가 크기도 하거니와 다른 지역이나 모임에 '사랑회'의 활동을 전파하려는 뜻도 있어서 지역 내 몇몇 단체들과 함께 꾸려지고 있다.

어린이마당은 주민과 어린이가 스스로 꾸미는 마당이다. 일부 준비된 공연도 있지만 개인이나 가족은 물론 각종 학원이나 학교, 유치원 같은 단체가 참여해서 일종의 동네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마당에는 어린이에서

부터 할아버지까지 세대별로 출연하거나 또는 경비원·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상가 대표 등 직업별로 출연하여 다양한 장거 자랑을 한다.

이밖에 단오마당에는 창포물로 머리 감기, 부채 그리기(옛날에는 단오 때, 그 해에 쓸 부채를 만들었다), 팔씨름, 줄넘기, 굴렁쇠 놀이, 엿치기 등 민속놀이를, 광복절마당에는 태극기 그리기, 북한만화 전시회, 봉숭아 물 들이기 등을, 추석마당에는 민요 공연, 가야금이나 대금 연주 등 전문가들의 공연과 동네 어린이들의 공연이 함께 한다.



이경철 사랑회 운영위원장

구청의 도움을 받으면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어려움이 있을 법도 한데.

“창립 첫해에는 경비를 모두 운영위원의 기부로 충당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아 노원구에 시민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시민단체로 등록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구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게 되어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관변단체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가능한 모임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연할 때 으레

나 생색용 프로그램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까지 오는 동안 힘든 일이 어디 이 뿐이었겠는가. 이경철 운영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출연자를 섭외하는 것과 자원하여 운영위원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없다는 게 아쉽고 힘들단다. 그래서 최근에는 7명이었던 운영위원들이 새로운 운영위원을 한 명씩 데리고 오기로 해서 그나마 12명으로 늘어났다.

### 주민들이 운영위원 얼굴도 몰라

사무실도 없고 상근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듯 다양한 놀이마당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궁금했다.

“보통 놀이마당 1회를 준비하는데 한달 정도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마당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짜고 부모들을 만나서 출연할 아이들을 섭외하고,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이고, 당일에는 무대와 조명·마이크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요. 운영위원들이 무대에 올라가 인사말도 안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운영위원들의 얼굴을 몰라요.”

항상 그렇듯이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돈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모임은 98년부터 노원구에 시민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구청으로부터 연 2회씩 경비의 50%를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위원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면 포스터 원본은 보관해두었다가 계속 사용하기도 합니다.”

### 주민들의 이해 부족이 한때 힘들었어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이해부족이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모임도 있다보니 놀이마당의 성격을 오해하여 포스터나 현수막을 붙이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시끄럽다고 파출소에 신고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꾸준히 해오는 동안 주민의 이해도 높아져서 올해 어린이마당이 열릴 때는 상가 모임에서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에게 튀밥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등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힘든 일 들추기를 그치고자 일하는 보람이 무엇이라고 화제를 슬쩍 돌려본다. 이 위원장은 자기만족이라고 곧바로 대답을 잇는다. 처음에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즐겁게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한다.

각박한 도시의 삶 속에 이처럼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려는 시도가 더욱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 이런 모임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모임에 관심이 있어 두세 번 도와준 적이 있었지만,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모임에 열의를 갖는 사람들로 구성된 튼튼한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수입니다. 우리도 음향기기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석 운영위원이 매년 거의 무료로 자신의 음향기기를 제공하고 있기에 7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의 경험에서 보듯, 경비문제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로 등록을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 열의 있는 운영위 구성이 필수

처음 1,2년은 주민참여나 출연자 섭외도 그리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해나가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며 구성원들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 위원장은 다른



어린이마당에서 전통극을 공연하고 있는 아이들

모임에서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한다.

### 관객의 삶과 분리된 무대는 공허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요즈음의 세태에서 생활 속에 뿌리를 두는 문화를 살려내고자 하는 ‘사랑회’의 활동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문화가 인간 삶의 총체적 표현이라면 관객과 무대의 구별은 원래 부질없는 것이고, 관객의 삶과 분리된 무대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나 관객 모두를 소외시키는 공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놀이와 삶의 분화를 거부하고, 놀이를 전유하고 그 나머지 사람을 놀이의 관객으로 전락시키는 ‘놀이 전문가와 관객의 이분법’을 극복하여 주민들에게 놀이를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랑회’는 더욱 소중한 것이리라. 이런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 늘어날 때, 갈수록 삭막해져만 가는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인간답게 살아가는 공간임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편집부)